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전쟁지역에서 산골마을까지, 현장에서 신문 저널리즘 가치 증명

2026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 선정

뉴스취재	기획·탐사
<p>朝鮮日報</p> <p>“北에서 포로는 변절, 한국 가고 싶다”</p>  <p>‘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 <2025년 2월 19일자 1면></p>	<p>경인일보</p> <p>살해된 여성 ‘600장의 SOS’ 한달간 검토만 한 경찰</p> <p>동행사 ‘납치살인’ 늦장 대응</p> <p>‘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2025년 5월 16일자 5면></p>
<p>한국경제</p> <p>“민주화 시위 주동자 보내달라” -100여 사기꾼 인도 미루는 캄보디아</p>  <p>‘사라진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해부하다’ <2025년 3월 20일자 25면></p>	<p>奎北日報</p> <p>MZ세대 기자들 “이장 한번 해보겠습니다”</p>  <p>‘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 <2025년 1월 20일자 1면></p>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1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회를 열고 2026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을 선정했다.

뉴스취재부문 수상작은 조선일보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와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관련 보도가 각각 선정됐다.

기획·탐사부문에는 한국경제의 ‘사라진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해부하다’와 전북일보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 보도가 각각 뽑혔다.

한국신문상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해 한국신문의 발전과 언론정당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뉴스취재부문과 기획·탐사부문도 2개 부문으로 재경 및 지역신문을 각각 선정한다. 올해 한국신문상 공모에는 뉴스취재부문 12건, 기획·탐사부문 33건 등 총 45건이 접수됐다.



지난 11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응모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변재운 전 국민일보 발행인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 △조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 6명이다.

뉴스취재부문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을 우크라이나 현지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만나 세계 최초로 인터뷰한 보도다. 해당 보도는 북한군 포로의 실제 육성을 통해 북한의 전쟁 파병 실태와 강제 동원 정황을 생생히 전한 최초의 사례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인일보 조수현·정선아 기자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는 ‘단순 납치극’으로 문힐 뻔한 동탄납치 살인사건의 이면을 세상에 처음 알린 보도다. 해당 보도는 피해자가 사건 한 달 전 600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밝혀내며, 사건의 본질이 ‘잔혹 범죄’ 자체가 아닌, ‘경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임을 지적했다. 두 보도는 국제 분쟁과 사회적 참

사의 이면을 집요한 취재로 드러내며 사건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전달했다.

기획·탐사부문

한국경제 김다빈·류병화 기자의 ‘사라진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해부하다’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실태를 장기간 추적해 한국인 납치와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현지 공권력 부패와 외교적 공조의 한계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해당 보

도는 국내 언론들의 후속 보도와 더불어, 외교부·경찰청 등 정부의 외교 치안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북일보 박현우·김지원 기자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는 MZ세대 젊은 취재진들이 직접 완주 고산 화정마을에서 3개월 간 ‘청년 이장’으로 참여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라는 지역소멸 문제를 집중 조명한 보도다. 해당 보도는 숫자로 표현하는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기억을 기록하고, 직접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밀착형 저널리즘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두 보도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탐사하고, 현실의 문제와 해법을 함께 제시했다.

시상식은 4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때 열리며, 뉴스취재부문과 기획·탐사부문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제70회 신문의 날 세미나·기념대회·축하연

4월 6~7일 프레스센터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4월 6~7일 양일간 신문의 날 기념행사 <표>를 개최한다.

기념 세미나는 ‘신문 70년: 역사의 기록,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4월 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

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0년 간 신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AI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7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

념대회가 진행된다. 기념대회에서는 △대회사 △개회사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국신문상·신문협회상·표어·캐릭터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열린다. 오후 6시부터는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계·학계·언론계 등 인사들을 초청해 기념 축하연을 연다.

제70회 신문의 날 행사

	세미나	기념대회	축하연
일시	4월 6일(월) 오후 2시	4월 7일(화) 오후 4시 30분	4월 7일(화) 오후 6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주제> 신문 70년: 역사의 기록, 미래의 비전	△대회사 △개회사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국신문상·신문협회상·표어·캐릭터 공모전 수상자 시상	△환영사 △축사 △건배사 △축하떡차르기

AI시대, 드디어 친절한 신문의 탄생

기고

박창영

매일경제 편집국 금융부 기자



각종 신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신문은 위기를 겪었다. 독자는 라디오, TV, 유튜브 등 새로 나타난 미디어로 이동했다. 이들 매체에 비해 신문 기사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 제한된 지면에 핵심 팩트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신문 콘텐츠의 속성이 불친절함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처럼 미디어 역사 변곡점마다 고전했던 신문이지만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신문에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한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신문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빠르게 굶어오고 붙여넣는 AI 시대가 되면서 자료의 출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서 신문 기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신문사는 수십년간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 이유로 다양한 팩트를 연결

하고 재가공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신문사는 AI를 활용해 기사 기사를 유기적으로 이음으로써 뉴스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짚어주고, 과외선생님처럼 상세하게 설명도 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친절한 신문이 탄생하는 것이다.

AI 활용해 짚어주는 뉴스 이면의 맥락

매일경제는 60년 정론의 보도 야카이브에 AI를 접목함으로써 독자의 기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선보인 MAI 뉴스 에이전트가 대표적이다. MAI 뉴스 에이전트는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보도 중 사용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만 골라 알려주는 스마트 뉴스 서비스다. 기사를 뉴스레터처럼 친근한 문체로 자세하게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준다.

MAI 증권 에이전트는 경제지로서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다. 기사에 근거해 주가의 등락 원인을 분석한다. AI는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 관련해 수년간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알려주고, 개별 소식이 호재였는지 악재였는지까지 제시해 준다. 이밖에

도 AI 기자가 그날 주요 뉴스를 15분 분량 오디오로 전해주는 ‘마이 모닝 브리핑’과 뉴스 속에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AI 지식 검색’ 등 10여개 서비스로 독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다양한 혁신을 통해 언론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매경AX는 지난 2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을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 외에도 국내외 다수 신문사가 AI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 서비스와 AI의 결합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의 Ask FT는 대화형 AI다. 독자가 질문하면 FT가 축적한 과거 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믿을 만한 답변을 생성해 제공한다. 단순 검색을 넘어 독자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표방한다. 이밖에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 다양한 언론사가 기사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뢰할 만한 출처로서 신문 위상 공고히 해야

이 같은 신문의 AI 전환 노력이 열

매를 맺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기술(IT) 역량 제고가 그렇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를 채용하고, 내부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사와 AI가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기사 입력기와 편집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강화보다 중요한 건 신문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AI 에이전트는 신속성을 바탕으로 기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지만, 반대로 기자를 게으르게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 AI에 과의존하면 취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 취재를 통한 팩트 체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AI가 신속하게 내놓은 거짓 정보를 걸러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AI 시대에 사회가 신문에 기대하는 진실 검증의 역할을 해내는 데 차질이 생긴다.

그렇기에 인간 중심의 뉴스를 지켜내겠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언론 본연의 가치인 신뢰와 공정성을 잃지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NYT와 AP통신, 로이터 등 세계 유수 언론사가 AI 활용에 있어 엄격한 윤리 준칙

부터 마련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매일경제 또한 작년 ‘AI 활용 지침’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I가 단독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도록 선을 그었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에 관한 기준도 세웠다. 아마 앞으로 많은 국내 신문사가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기준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매력적인 조리 도구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육류와 채소를 섞고, 양념을 쳐 세상에 없었던 요리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최첨단 국자와 냄비만으로 밥과 국을 내놓을 수는 없다. 요리의 핵심은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뉴스룸이라는 주방에서 기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맛있는 뉴스 콘텐츠를 끓여내기 위해선 기자가 현장에서 캐온 싱싱한 재료가 필수적이다. AI가 발달하더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 중요한 정보를 알아오는 기자의 역할을 한동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인간 중심의 뉴스를 더 공고히 구축하면서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신문의 시대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자 일일 선생님’ 신청하세요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5~11월 전국 120개교에서

신문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일선 초·중·고 학생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 증진 및 진로 설계를 돕고자 ‘2026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해마다 회원사 기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기사 작성법 및 신문 제작 과정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신문을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등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

생들은 진로 탐색의 기회와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2~5명 내외의 기자를 이달 18일까지 협회에 추천하면 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자 선정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회원 신문사와 학교가 일정 등을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2025년 7월 21일 중부매일 김미정 사회부장이 문상초등학교에서 신문기자 진로탐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

마케팅협 회장에 오병철 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 재선임



신문협회 산하 마케팅협회는 지난 6일 부산 L7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오병철(사진) 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날 마케팅협은 △유통 취약지역 조사 등 신문유통 사업 개선 △정부 신문유통 지원 확대 방안 △신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기술협 회장에 김희준 세계일보제작단 대표이사 선임



신문협회 산하 기술협회는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희준(사진) 세계일보제작단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기술협은 △인쇄설비 유지보수 비용 협력 체계 구축 △인쇄시설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방안 △인쇄 공백 지역 간 협력 모델 도출 등을 해 주요 사업도 확정했다.

NYT 회장 “우리 신문 아니어도 좋다. 어떤 언론이든 구독해달라”

설즈버거 회장, 언론 지원 호소 광고



아서 그레고 설즈버거 뉴욕타임스(NYT) 회장 겸 발행인은 지난 3일 자사 팟캐스트 등에 “NYT가 아니어도 좋으니 독자적인 취재(original reporting)에 전념하는

어떤 뉴스 조직이든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1분 분량의 음성 광고(사진)에서 설즈버거 회장은 “나는 뉴스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지만 동시에 기자 출신으로,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직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우려하며 지켜

봐왔다”며 “보통 이런 광고에서는 NYT 구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오늘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독자 여러분께서 독자적인 취재에 전념하는 어떤 뉴스 조직이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특히 훌륭한

지역 신문들은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른 전국지도 좋다. NYT를 후원한다면 그 돈을 활용해 기자들을 현장에 파견해 인공지능(AI)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사실과 맥락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일리노이주 지역언론 세액공제 1년...55개 언론사 수혜

5년간 총 2,500만 달러 지원...첫 해에 400만 달러 배분 소규모 지역 언론 고용 유지·창출 효과 확인

미국 비영리 미디어연구기관인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는 지난 2월 5일 ‘일리노이주 지역언론 세제 지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리노이주가 지난해 도입한 지역 언론 세액공제 제도는 언론사에 재직 중인 기자 한 명당 연간 최대 15,000달러(약 2,000만 원)의 급여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규 기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당 10,0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361억 7천만 원, 연간 500만 달러)다. 세액공제 제도 제정에 참여했던 리빌드 로컬 뉴스는 프로그램 시행 1년 분석 보고서에 제도 시행 과정과 개선점 등을 담았다.

시행 1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첫 해(2025년) 주 전역에서 120개 이상의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는 55개 뉴스 기관

(신문, 디지털 뉴스 사이트, 방송사, 민영 및 비영리 뉴스룸 포함)이 400만 달러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 기관인 상무경제개발부(DCEO)에 따르면, 총 73개 언론사가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 심사 결과 기준 상승인 55개 사 △거부 11개 사 △보류 6건이었다. 시행 결과, 대부분의 언론사는 신규 채용보다 기존 기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언론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400만 달러는 2025년에 전액 배정된 반면, 신규 언론인 채용을 위해 배정된 100만 달러 중 26만 달러만 사용돼 신규 채용 자금

의 약 4분의 3이 미사용됐다. 이에 대해 ‘리빌드 로컬 뉴스’는 “일회성 채용 세액공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뉴스룸이 신규 직원 채용에 드는 장기적인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자금의 독점 방지’와 ‘지역 균형’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대다수가 시카고 대도시권 외부 지역 언론사에 배정됐다. 특히 수혜 언론사의 3분의 2가 기자 6명 이하의 소규모 언론으로, 대형 매체의 지원금 독식을 방지했다. 매체별로는 지역 신문사가 지원금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방송 및 디지털 매체에 분배됐다(대형 미디어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액공제 프로그램 개선 방안

- 1 신규 채용 유인책 강화 및 구조 개편
- 2 자격 요건 사각지대 해소 (공영 미디어 및 1인 미디어 포함)
- 3 매체 특성 반영한 발행 빈도 요건 완화
- 4 정보 제공소통 개선으로 참여 유도

개선 방안

보고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더욱 탄력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첫째, 현재 신규 기자 채용 세액공제는 기존 인력 유지 공제보다 혜택이 낮아 채용 동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신규 채용 공제액을 최소 1만 5,000달러(약 2,170만 원)로 상향하고, 단발성 지원이 아닌 ‘2년 점진적 보조금(장기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현행 법령상 ‘조직 사명에 뉴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대학 기반 공영 방송국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고서는 법령 세부 조항을 수정해 공영 방송 면허를 보유한 주 정부 교육 기관 등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1인 미디어까지 범위를 넓혀 지역 저널리즘의 외연을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지원대상 조건인 ‘주 1회 이상 발행’ 규정은 긴 호흡으로 심층 취재를 진행하는 탐사 보도 전문 디지털 언론사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보고서는 디지털 매체의 경우 발행 빈도 요건을 ‘주간’에서 ‘월간’ 단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부 언론사들이 프로그램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고서는 소규모 언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 자료와 지침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英 언론사, AI 뉴스 무단 학습 대응 위해 연합 결성

협상력 향상·개별 매체 자율성 지키는 ‘투트랙 전략’

영국의 5개 주요 언론사(BBC,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텔레그래프, 스카이 뉴스)는 지난 2월 26일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 사용 권리 표준 연합(Standards for Publisher Usage Rights, SPUR)’을 출범했다. SPUR은 AI 기업들이 언론사의 기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뉴스 사용 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언론사 연맹이다.

언론사 콘텐츠 통제권 회복

연합 출범을 위해 5개 사 언론사 대표들은 전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하며 글로벌 연대를 촉구했다. 연합은 “언론사의 취재 보도와 아카이브, 독창적 콘텐츠가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

며, “명확한 허가나 보상을 위한 공통 표준 없이 무단 복제가 지속되면서 저널리즘을 지탱해 온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PUR의 사명은 AI 개발자에게는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합법적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언론사에는 실질적인 콘텐츠 통제권 확보와 정당한 가치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업계 공통의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이용 시 보상 기준 검토**

SPUR은 공동 라이선스 협상 기구는 아니며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자가 AI에게 질문했을 때, △AI가 답변을 생성(추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하거나 인용했을 때 비용을 내는 방식에서 기반한 ‘크롤링당 과금’ △AI가 답변을 생성(추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하거나 인용했을 때 비용을 내는 방식인 ‘답변 생성당 과금’ 등 혁신적인 보상 체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합의 공동 활동과는 별개로 파이낸셜 타임스(FT)나 가디언이 구글·오픈 AI와 계약을 맺은 사례처럼, 각

언론사의 개별적인 라이선스 협상권과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한다. **글로벌 미디어 연대 확대 추진** SPUR은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미디어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언론사가 연합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SPUR 경영진은 “언론사의 원천 보도를 존중하고 대중의 신뢰를 수호하며, 저널리즘과 AI가 상생 번영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계 반응** SPUR 출범에 대해 세계 언론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 회장이자 미디어하우스(Mediahuis) CEO인 게르트 이세르바르트는 SPUR 캠페인이 “독립 저널리즘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NMA 디지털 플랫폼 이니셔티브 위원회 의장 겸 십스테드(Schibsted) CEO인 시브 유빅트 베이트네스는 “영국 언론사들의 이번 결집은 저널리즘의 경제적 토대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AI 기업들이 권리자의 동의나 투명성, 정당한 보상 없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상업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묵인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 미디어그룹 리치(Reach)의 CEO인 피어스 노스(Piers North) 역시 이번 연합 결성을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론직필로 언론 존재 이유 증명해야”

경남신문 창간 80주년 기념식

경남신문(발행인 이종봉)은 지난 3일 본사 1층 강당에서 창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사’이자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보도와 정론직필의 원칙을 지키며, 도민과의 꾸준한 소통 속에서 언론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시대, 압도적 품질의 차별화 콘텐츠로 대응”

조선일보 창간 106주년 기념식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지난 5일 본사에서 창간 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준오 사장은 기념사에서 “AI 기술은 누구나 기사와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내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언론의 본질은 현장을 발

로 뛰며 팩트를 찾아 진실을 가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도적 품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문 지면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온라인에서도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심층 콘텐츠로 국가 경제 이끌어야”

대한경제 창간 62주년 기념식

대한경제(발행인 김상수)는 지난 4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창간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수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뉴스를 선도해 온 대한경제는 이제는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아

우르는 종합경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론 본연의 역할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언론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2026 합기용 세계제패 기념 제23회 춘천호반마라톤’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4월 1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에서 ‘2026 합기용 세계제패 기념 제23회 춘천호반마라톤’을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은 춘천 출신 합기용 선생의 1950년 미국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 우승을 기념하는 대회이다. 올해 대회부터 ‘춘천인(春 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이 함께 진행되며, 모인 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종목은 △5km △10km △하프이며 문의는 대회운영사무국(033-264-1365).

경북도민일보, ‘2026 부동산 시장 전망과 포항시 주거 트렌드 강연회’

경북도민일보(발행인 한명희)는 오는 18일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2026 부동산 시장 전망과 포항시 주거 트렌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포항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이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금리와 대출,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을 설명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참석자 3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민일보 홈페이지(www.hidomin.com).

문화일보, ‘소나무 묘목 나눔드림입니다’

문화일보(발행인 김병직)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문화일보 사옥 앞에서 묘목을 무료 나눔한다.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소나무 1,000그루(화분) △동백나무 500그루 △남천 500

그루 △만병초 500그루 △철쭉 500그루 등 총 3,000그루를 사전 신청자에게 배포한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문화일보 홈페이지(www.munhwa.com)이다.

서울경제, ‘내부통제 정책포럼’ 개최

서울경제(발행인 손동영)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회 서울경제 ‘내부통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도입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대전환’을 주제로, 금융권 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변화와 글로벌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문의는 서울경제신문 마케팅국(02-724-8781).

세계일보,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

세계일보(발행인 이기식)는 오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상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에 주어지는 상으로, 부문별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서울 금천구청) △성평등 가족부장관상 대상(경기 여주시 가족센터) △세계일보 사장상(서울 중구 가족센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일보 홈페이지(www.segye.com).

한국경제, ‘액티브 시니어 아카데미’ 모집

한국경제(발행인 조일훈)는 4월 3

인사

내일신문 새 발행인에 박진범 부사장



내일신문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새 발행인에 박진범 부사장(사진)

을 선임했다.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약력 △내일신문 경영지원실 실장·편집국장 △대표이사 부사장

일까지 ‘액티브 시니어 아카데미’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니어들이 인생 후반을 능동적이고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티브 시니어 전문 과정으로, 4월 14일부터 매월 두 차례씩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강의는 시니어의 정체성, 건강, 라이프스타일, 자산관리, 주거 방식 등을 주제로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문의는 한경액티브시니어아카데미 사무국(02-3277-9819).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청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2026년도 저널리즘 교육 안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신뢰 제고와 올바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저널리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 교육은 우리 위원회 자율심사에 참여하는 서약사 및 비서약사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언론사 데스크 및 기자

교육 기간

2026년 4월 ~ 12월

교육 내용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례 중심 대면·비대면 교육

신청 방법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율심의 서약(가입) 및 언론사 자체 교육신청 문의: 위원회 사무국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실천,
저널리즘 교육에 참여하세요.